

# 하남 용담사가 무너진다

## 팔당댐 상수도공사 영향... 법당 붕괴-지하수 고갈

경기도 하남시 용담사(주지 법춘)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공사로 인해 지반침하와 지하수가 고갈되고 법당과 요사채 곳곳이 무너지는 등 폐사위기에 놓여있다. 또 수돗물 공급도 끊어져 매일 식수 2말씩 배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용담사와 성남시암면 총무 지현스님, 성남신도연합회장 임선교법사 등 10여명은 10일 팔당댐 상수도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관청시추와 법당보수 요사채 신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한국중공업 현장사무소측은 "사찰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현장을 실사하여 보·개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빨리사인 한국기술공사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술공법상 하자가 없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팔당댐 상수도 공사는 용담사 지하로 굴착공사가 65%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주변 배밭미동마을 주민들과는 이미 보상비관계도 매듭지어진 상태. 이런상황에서 올해 봄부터 지하발파로 인해 건물과 초목이 흔들리며 요사채의 지반

이 침하되고 한쪽벽면이 무너졌으며 보일러시설도 훼손된 상태이다. 또 3군데의 약수터가 말라 버리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임선교법사는 "지역불교계가 연합하여 이 문제가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담사 대책마련이 미진할 경우 대대적인 불사시위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용담사는 조선조 세종대 왕때(서기 1418년) 독립사로 창건된 인조대왕이 다녀가신 대찰이었으며 1960년 청담스님에 의해 용담사로 개명됐고 현재 6천5백여평부지에 법당과 요사채 2동의 건물이 남아있다.

(하남=김원우 기자)



수자원공사의 상수로공사로 법당과 요사채 곳곳이 무너지고 지하수가 고갈된 용담사.

### 송광사 불조전 비새고 선암사 만세루 기둥썩고

송광사 불조전과 선암사의 만세루가 지붕에서 비가 새고 기둥은 심하게 썩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송광사의 나한전 도성당 해정당과 선암사의 대웅전 등

### 성보관리 '비상'

향각 설선당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 보수가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순천시가 최근 90여점의 사내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비지정문화재인 정혜사 대웅전 일주문 범종각과 동화사의 지장전 종각 등의 건물도 비가 새거나 기둥이 썩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했거나 보수중이지만 이를 모두 완벽하게 보수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내년에도 국·도비 14억1천만원을 책정, 원형훼손이 심각한 문화재부터 우

선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운문비구니 승가대학원 20일 현판식

교계의 최초 비구니 전문강사 양성교육기관인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원장 명성스님·운문사 주지)이 2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은 수의 과정 4학기, 전문과정 6학기를 개설할 방침이다. 수의과정은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생에게, 전문과정은 수의과정을 이수 교육실의를 통과한 학인스님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 수자원공 팔당관리소 취재방해 기자폭행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관리사무소(소장 이상욱)는 10일 취재차 방문한 본지등 교계신문 기자 3명과 불교TV PD와 카메라맨 등 5명에게 청원경찰 20여명과 직원 10여명이 취재를 방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교TV 김원곤장과 기자들이 찰과상을 입었으며 TV카메라가 부분파손(피해액 5백만원)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수자원공사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대표자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및 해당자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영주총보과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불우이웃에 김치 5포기씩"

#### 문경 모전복지관 '김장캠페인' 전개

문경 모전사회복지관(관장 현관스님)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5포기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모전복지관은 김장철을 맞아 5일부터 12월20일까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정 등에 김장5포기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 가정 5포기 더 담그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내 1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한 1백50세대와 복지관 자체에서 관리하는 60세대 등 약2백10세대.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은 '김장철

자비담그기'에 동참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중이다. 자원봉사는 김장담그기, 차량지원, 배달비스로 나누어지며 후원봉사는 김장후원, 물품후원, 금액후원으로 분류된다. 김장후원은 개인의 경우 5포기, 단체의 경우 20포기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물품후원은 김장용 재료를 보내면 된다. 후원자가 담그어 복지관으로 전달하거나 복지관에서 담근 김장 일부는 동사무소 등에서 추천한 1백50세대와 복지관 자체에서 관리하는 60세대 등으로 배달된다. (0581)555-0108

대구=이윤호 기자

### 구인사 인근 석회석 광산 개발 신도·주민 "환경파괴 중단하라"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총본산 구인사가 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 식수고갈및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구인사 신도 및 지역주민 2천여명은 3일 구인사 주차장및 기곡면 보발리 광산허가신청지에서 농성을 갖고 석회석 광산 개발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양군 기곡면 보발리 산 2번지의 석회석 광산은 96년 김창선씨(54)가 광산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광산허가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허가신청인 총본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

재 대진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따라 구인사는 광산개발 신청지가 단양의 제2팔경인 구봉판문지역내에 위치해 있고 구인사와 직선거리 8백50m에 위치해 광산개발시 식수고갈 및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도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식수오염 통행불편과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광산개발 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회암광산 1차 채광예정지의 경우는 구인사 일대에 보존된 석회암 대부분을 채굴대상으로 하고 있다.

### 경사로 설치 당부 조계종, 전국사찰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장은 최근 각 교구 본사와 직할 사찰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출입 편의 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각별한 주차배려를 당부했다. 총무원장의 이같은 요청은 보건

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종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신 증 개축및 용도변경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장애인 노인 입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 설치대상은 면적 5백입방미터를 넘는 종교시설이다.

### 경주황성공원 반대여론 '확산'

#### 체육관 건립 대구·울산등 69개 시민단체 철회 성명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가 10월8일 성명을 발표함에 이어 23일 경주 대구 울산 포항 서울 부산등지의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주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반대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경실련 경북권 대구경북지역경실련 경주환경모임 한국YMCA경북연맹 대구흥사단 울산민노총 공주불등 69개 시민사회단체는 △역사공원에 실내체육관 공사중단△중양정부는 자치단체의 부분

별한 개발행정을 시정할것 △황성공원실리기 범시민연합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할것등 3개항으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지난9월 주간 인사이드월드에 게재된 실내체육관 기사와 관련, 임모교수(황성공원실리기 범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신모국장(경주 경실련 사무국장) 및 인사이드월드 발행인과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등 경주시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공군 군법당에 화재 정각사 대응전 전소

경기도 성남시 00전투비행단 군법당 정각사(주지 김희인 법사)에서 10월 30일 낮 12시45분 경 화재가 발생, 1백30여명의 대응전 내부가 전소됐다. 주지법사에 따르면 "법당은 요사채와 동일 건물에 위치해 있고

화재 발생 당시 사람이 법당내에 있었던 점과 불이 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각사 화재사건을 수사 의뢰 받은 국립수사과학연구소는 10월 30일 현장 방문을 마치고 화재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각사측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 '청소년'을 가리켜 미래사회 발전의 주역

이요, 희망이라고 한다. 불교계 또한 청소년포교가 최대 과제며, 으뜸 육성분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것은 구호일 뿐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파라마타 청소년협회를 염두에 둔 말이다.

1996년 5월 '청소년포교'라는 뜻을 달고 화려하고 의욕적으로 행해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파라마타는 줄곧 포교원과의 관계 및 임원 구성 등 조직운영과 이를 둘러싼 재정적 취약성이라는 파도에 흔들려 왔다. 이는 회장스님의 사외표명 및 사무국장의 사직 등의 문제로 표출되면서 교계의 심각한 우려를

놓고 있다.

이와관련 청소년포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단이 파라마타를 육성하지는 재정과 조직 구조상의 잡음이 끊일 날이 없고, 내버려 두자니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



### 도 필선

(취재1부 기자)

### 청소년포교는 애물단지?

나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파라마타를 둘러싼 이같은 문제는 포교원과의 관계정립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게 중론이다. 조계종 청소년포교 독립기구나 아니면 조계종이 특화시켜 놓은 단체내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이 파라마타의 대외적 위상확립 및 청소년포교에 관심있는 승·재가의 폭넓은 영입, 재정확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타의 대외적 위상확립 및 청소년포교에 관심있는 승·재가의 폭넓은 영입, 재정확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함께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는 관계자들의 정신수양도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때 그 집이 화목하고 편안한 것처럼 파라마타 총재, 회장, 사무총장이 의욕적이고 책임감있게 역할을 수행할때 설립취지 및 추진 사업 등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자들 또한 파라마타와 포교원에 대한 비판과 지적으로 일관하기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동지 법어, 팔죽의 유래, 팔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록·내·용

- 제1부 동지맞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맞이 발원문
-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팔죽의 유래/팔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점(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팔죽과 나한님
-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사찰을 막아주는 석/신성한 색
- 제4부 아세(亞歲-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새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 크기/4×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 감로출판사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 불기 2542(무인년)달력 보급안내

납품일을 맞춰 드립니다.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면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현',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재본
- ※ 견본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감로기독교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